

자기 운명도 모르는 도사들



전 형 일

세상이야기

70~80년대 세계적인 인기 팝그룹 보니 엠(Boney M)의 히트곡 중 하나가 ‘라스푸틴(Rasputin)’이다.

라스푸틴은 러시아에서는 ‘괴승’으로, 영어권에서는 ‘미친 수도자’로 불리는 유명 인이다. 서구권에서는 그와 관련한 서적만 수백 권이며 드라마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사이비 술사(術士)의 대명사다.

라스푸틴은 제정 러시아 말 혈우병으로 추정되는 황태자의 병세를 호전시키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기적의 치유사’로 불리게 된 그는 이후 치료 능력과 예지력으로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와 황후의 절대적 신임을 얻게 된다.

그는 수도사로 불리지만 신학을 공부하거나 성직을 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라스푸틴은 황실의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정과 인사권은 물론 군사작전까지 개입했다. 심지어 황제가 나라를 비운 사이에는 그가 러시아를 섭정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전횡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민심은 돌아서도 황제는 그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결국 그의 월권과 추잡한 행실로 귀족들이 그를 처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때가 1916년 12월이었고 이듬해 10월 볼셰비키 혁명으로 황제 가족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처형되었다. 이로써 로마노프 왕가는 사라졌다. 기밀이 해제된 러시아 문서에 따르면 라스푸틴의 직접 사인은 이마에 박힌 총상.

이보다 앞선 1882년 조선에서는 임오군란 때 피신했던 고종 왕비 명성황후(민비)가 피란지 장호원에서 무당 박창렬을 만났다. 무당은 당시 암울했던 민비에게 환궁을 예언했고 그대로 실현됐다.

왕비는 환궁할 때 무당과 동행했으며 그에게 ‘진실로 영험하다’는 의미의 ‘진령군(眞靈君)’이라는 군호를 내려주고 ‘언니’라 부르며 궁궐에 함께 살았다. 그 뒤 진령군은 창덕궁에서 함께 살다가 사당을 행쳐 나갔다. 노론 거두 우암 송시열 집터에 지은 사당 이름은 북관왕묘(北關王廟). 삼국지의 장수 관우, 즉 관왕을 모신 동묘(東廟, 東關王廟)와 같은 급이다. (‘오하기문(梧下記聞)’)

왕과 왕비는 모든 판단을 그녀에게 의지

했다. 고종 뒤에는 명성황후가, 명성황후 뒤에는 진령군이 있었다. 왕실에서는 국관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줄을 대기 위해 탐관오리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후 진령군의 그동안 죄상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1894년 전 형조참의 지식영은 “요사스러운 계집 진령군의 살점을 사람들이 씹어 먹으려 한다”고 상소했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공식적인 최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나 신(神)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이비 예언자들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능력 없는 통치자의 불안한 심리가 이들의 제물이 되었다. 신령(神靈)했다는 라스푸틴과 진령군은 민심 이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결국 나라는 모두 망하고 말았다. 더욱이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처참한 마지막은 알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의 법사와 도사들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웬만한 도사보다 더 용하다고 자부한 영부인은 또 어딘가. 정권의 말로는 커녕 감옥 가는 자기 운명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들이 국사(國師)로 활동하면서 대통령실 이전부터 국정을 운영해 왔다.

전 언론인/명리학자/철학박사
저서 : 명리 인문학, 사주팔자 30문 30답

‘덤’이 된 가상자산 선진화



기지 수첩

안 승 진
(금융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관심은 온통 스테이블코인으로 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부터 약속했던 가상자산 시장의 선진화는 부수적인 목표가 됐다.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은 것은 지난 6월 대선부터다.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도도 늘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입법의 최우선과제가 됐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부터 약속했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는 스테이블코인

과 묶여 하나의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취급되기 시작했고, 법안은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힘겨루기에 휩쓸렸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엄격한 규제에 짓눌려있다. 가상자산이 투기성 상품으로 여겨졌던 당시에는 적합한 규제였지만, 10년 가깝게 규제가 제자리걸음하면서 업권의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법안이 속도를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을 주요한 전자자산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고, 전통금융과의 융합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법은 가상자산 거래시 실명 제좌를 요구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인의 거래는 금지된다. 지수 추종 상품을 비롯한 파생상품의 거래도 금지돼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도 불가하다.

더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국내 이용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떠났고, 거래액의 절반은 해외로 유출됐다. 업권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로 떠난 내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연간 100조원 이상이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무규제보다는 규제가 낫다”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사후규제를 우려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영업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다. 앞서 사후규제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고, 금융권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머뭇거리는 상황이어서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0일까지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덤’이 된 모양새지만, 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

/asj123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4일 (음 10월 15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고교분투하는 것이 인생의 소득 있는 시간들. 48년생 일 추진할 때 고집보다는 소통을. 60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매수도 무난. 72년생 가야 할 길은 있으니 도전. 84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행동 조심.



소

37년생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잘 살피자. 49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61년생 기쁨과 근심은 좋아 한 장차. 73년생 바람이 불어도 모두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85년생 공짜를 바라지 말고 투자를 해라.



호랑이

38년생 어려운 일이 쉽게 해결. 50년생 주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62년생 목표를 세우고 온 힘을 기울이자. 74년생 가정의 근심이 깊어질 수 있으니 자금계획을 세워. 86년생 새롭게 계획을 짜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토끼

39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 믿어라. 51년생 비정상적인 만남은 반드시 말썽을 부린다. 63년생 분수를 지켜 성의를 다하라. 75년생 득과 실을 판단하기보다는 일을 열심히 추진. 87년생 거울은 반드시 혼자 웃지 않는다.



용

40년생 신규투자보다는 주어진 일을 하도록. 52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64년생 주변과의 대립은 억외의 손실을 가져온다. 76년생 누구에게나 신용은 지켜야. 88년생 초조해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면 된다.



뱀

41년생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단조로운 하루. 53년생 이론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을 보는 것도. 65년생 누구를 위한 희생인지. 77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이 먼저 아닌가. 89년생 상대의 실수를 너그럽게 넘겨라.



말

42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운 좋은 날. 54년생 어려운 일이라도 해나가다 보면 좋은 일이 오기마련. 66년생 이성을 만나 지출이 많다. 78년생 고민이 오히려 해결. 90년생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버려야 내가 편하다.



양

43년생 가는 사람도 내게는 소중한 사람. 55년생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하려 하겠다. 67년생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79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이 있으니 믿고 나가보자. 91년생 멀리 있다 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니.



원숭이

44년생 돼지를 사기 전에 우리를 먼저 만들어라. 56년생 막혔던 금전 운이 해결된다. 68년생 어떤 결과도 다 내 탓이니 원망하지 마라. 80년생 매사가 처음고통이 따르지만 곧 편안함이 온다. 92년생 신선한 먹을거리를 선물 받는다.



닭

45년생 돌아갈 수 없기에 지난날이 더 생각난다. 57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라. 69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81년생 대립은 치명적이나 감정을 추슬러야. 93년생 생각 보다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겠다.



개

46년생 과거의 조력자를 잊지 말도록. 58년생 창업하려는 것은 잠시 미루는 것도 좋을 듯. 70년생 처음 계획을 수정하면 시간 낭비만. 82년생 인생에서 스스로의 후회와 자책은 금물이다. 94년생 갈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



돼지

47년생 이사는 나이가 들어 신중해야만. 59년생 보석비가 쏟아져도 욕심 많은 사람은 민족을 모르니 마음을 비워라. 71년생 자신감은 내면에서 온다. 83년생 재물 운이 소폭이라도 상승하여서 즐겁다. 95년생 바로 옆에 의외의 귀인이 있다.

김상회의四季

교육계 자기 회생



삼국지 적벽대전에서 주유는 조조를 속이려고 충직한 노장 황계를 희생시킨다. 나이 든 황계에게 곤장을 때려 조조 진영에 거짓 귀순하도록 꾸민 것이다. 귀순한 황계는 조조에게 거짓 정보를 전하고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다. 나의 고통을 통해 상대방의 경계심을 흔드는 고도의 전략이다. 이런 전략을 교육계라고 하는데 중국 병법 36계 중 서른네 번째 전략이다. 이는 단순히 남을 속이는 기만술이 아니다. 장기적 성공을 위해 단기적인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는 자기 경영 전략이다. 시련과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이, 나를 단련하는 도구이자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는 명리학에서 말하는 흥운이나 삼재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한다.

삶은 오한의 균형 속에 놓여 있어야 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하면 형충파해가 생긴다. 이러한 충돌의 시기가 바로 인생의 흥운이다. 흥운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흥운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 상처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고통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의미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교육계와 깊이 연결되는 것은 편관이다. 편관은 예측할 수 없는 시련 압박 고통 스트레스를 상징한다. 그러나 편관은 동시에 권위 리더십 자제력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강인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편관의 운이 왔을 때 외부로 책임을 돌리거나 회피하지 않고 나의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통해 주변에서 인정받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또는 작은 재물의 손실을 감수해서 장기적이고 더 큰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결국 교육계는 편관의 고통을 길함으로 바꾸는, 명리학적 관점에서 가장 역동적인 전회위복 전략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0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1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4	6	8			5			
			1			8	2	
								4
	4		7	8		1		
3								7
		7		1	4		6	
9								
	1	5			2			
			6			3	8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8	1	6	9	7	2	2
6	2	9	2	8	7	9	1	8
2	1	7	8	2	9	9	8	6
8	9	2	7	1	8	2	6	9
2	7	6	9	9	2	1	8	8
8	9	1	6	8	2	2	7	9
7	6	9	2	9	8	8	2	1
9	2	8	8	7	1	6	9	2
1	8	2	9	2	6	8	9	7

8	1	9	7	2	2	8	6	9
2	6	9	9	8	1	7	8	2
8	2	7	6	9	8	1	2	9
7	8	8	2	9	9	1	6	
9	9	6	1	8	7	2	2	8
1	2	2	9	6	8	9	7	8
2	9	2	8	7	6	8	9	1
6	7	1	8	9	9	2	8	2
9	8	2	2	2	6	9	7	